

‘500년 전통’ 법성포 단오제 29일 개막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영광 전수교육관·뉴타운 일원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영광법성포 단오제’가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광군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5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강릉단오제, 경산자인단오제와 함께 3대 단오제로 꼽힌다.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법성포단오제가 지금과 같은 대중 축제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법성포의 조기파시와의 연관성도 크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파시의 활발한 물자 유통과 교역은 단오제의 재정적 기반이 됐고, 단오를 맞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나눔의 문화’도 이 시기에 형성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성포단오제는 다른 지역 단오제와 비교해도 차별화되는 민간 주도의 축제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중심이 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



영광군이 오는 29일부터 6월1일까지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단오제를 개최한다. 단오제 포스터.

길 수 있는 진정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법

성포단오제의 전통과 정서를 담은 창작 가무극이 첫선을 보이며 ‘단오 어린이 우리옷 뽀내기대회’, ‘낙화놀이’,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고 뜻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국가무형유산의 지정행사인 용왕제를 비롯해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와 기념식·단오제 씨름대회·청소년 페스티벌·학생 차예절 경연대회·민속놀이 경연대회·단심줄놀이·강강수월래·창포 머리감기 등 각종 체험 및 초청가수 공연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영광군과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는 단오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줄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성포단오제는 조상의 얼과 지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며 “이번 법성포단오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고 영광의 역사와 맛을 직접 체험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군, 국립수목원과 ‘특산식물 연구’ 협약

자생식물 11종 증식기술 개발

신안군이 지난 26일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신안군 지역명 특산식물’의 보전과 신안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안군이 보유한 고유의 생물자원인 신안새우난초, 홀도까치수염, 흑산도비비추 등 11종의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현지 내·외 보전과 증식기술 개발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자원의 보고로, 87종의 희귀 및 특산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신안군에서 처음 발견된 ‘신안새우

난초’는 군을 대표하는 특산식물로, 군화로 지정돼 보전 및 활용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목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문 ▲정원 정책·연구 활성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 국가연구기관의 역량 확산과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안군의 생물자원을 학술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6년 개최 예정인 세계습학술대회와 연계한 지역브랜드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농철 농가 일손 돕기

영암군 공직자 구슬땀

영암군이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영암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고령, 영세, 장애인 등 일손 취약농가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일손돕기는 영암군 1살·과·소와 1읍·면이 1농가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손돕기는 마을·양파 수확, 모판 깔기, 단감·배 과일 숙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군은 앞서 21일 삼호읍과 가족행복과 공직자 등 20여 명은 삼호읍의 한 무화과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무화과 줄치기 등 영농작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었다.

지난 23일에도 전남도 감사관실 공직자 15명도 영암읍의 한 단감 재배농가를 찾아, 감 숙기를 포



영암군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전남도 감사관실 공직자와 함께 영암읍의 한 단감 재배농가를 찾아 감 숙기를 포함한 과수원 일손을 도왔다. <영암군 제공>

함한 과수원 일손을 도왔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저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농가와 꾸준한 소통으로 어려움을 덜고 소득은 높이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전 군민 AI 활용 능력 향상 돕는다

소상공인 등 맞춤형 연중 교육

해남군이 미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챗GPT 인제 교육반’을 오는 6월부터 연중 운영한다.

해남군은 AI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 군민의 AI관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중 교육운영을 결정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 군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농업인, 공무원 등 대상을 세분화해 단계별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인 대상 과정은 AI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소상공인 대상 과정은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방법, 농업인 대상은 데이터기반 농사방법, 공무원은 정책홍보 및 업무적용 방법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일반인 대상 교육 과정은 4월부터 운영하는 교육을 연중 운영하게 되며 소상공인 교육 과정은 6월부터다. 농업인, 공무원 교육 과정은 7월부터 해남군청 7층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

완도군이 보길도 윤선도원립 내 세연정 권역을 3D 데이터로 구축한다.

완도군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이 최근 ‘신기술 기반 문화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수행하는 국가 주도 문화 디지털화 사업이다. 확장 현실(XR), 혼합 현실(MR), 인공지능(AI) 등 가상·융합 산업 분야의 활용 가능한 원전 문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은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립 내 세연정

권역(1만2213㎡)이다. 국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해 건축, 식생, 지형 정보를 고품질의 3D 실감형 데이터로 구현한다.

세연정은 조선 중기 윤선도 선생이 조성한 별서 정원으로 연못과 계류, 동대·서대 등 무대 공간, 칠암과 사투암 등 경승지, 석조 수리 시설 판석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 시가로 유서 깊은 장소다.

이번에 구현되는 데이터는 게임, 영상, 광고,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모듈 형태로 변환된다. 디지털문화자원과 민간 저작 도구 플랫폼 등에 무료 개방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정기 운영

목포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고문·위촉 변호사 총 7명(고문 4명, 위촉 3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

에 나서고 있다.

그간 상담소는 총 343회 운영됐으며 누적 상담 건수는 1723건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10회 운영, 5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오는 6월9일에 죽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상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